중국 투자 뉴스

지식경제부 kotra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 금주 포커스

中, 1월 수출입 29% 급감 / 1

❖ 경제통상 뉴스

[정책동향]
中 3325개 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 6
[경제동향]
中, 지난해 가공무역 위축 심각 / 10
中, 하이브리드카 대폭 지원한다 / 14
세계 최대 전기밥솥 시장, 중국을 공략해야 / 19
수출대금 미결제 사례로 본 홍콩바이어 상담 시 유의사항 / 24
[단신뉴스]
中, 개인소득세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해야 / 30

❖ 중국 지재권 단신뉴스

2008년도 특허출원 현황과 분석 / 32

❖ 유력기업 구매정보

China Potevio Co., Ltd. – 통신, 설비 분야 / 35

❖ 금주의 연구보고서

중국 현지법인 사업조정 요령 해설 / 38

❖ 투자진출 A to Z

개인소득세 자진신고 방법 관련 / 40
현지법인 재투자와 한국법인 투자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 45
주방 공적금 관련 문의 / 47
[공지사항] OIS(해외진출통합정보시스템) 안내문 / 49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안내

- 베이징센터 : (86-10) 6410-6162
- 상하이센터 : (86-21) 5108-8771
- 칭다오센터 : (86-532) 8388-7931
- 광저우센터 : (86-20) 8334-0052
- 다롄센터 : (86-411) 8253-0051
- IP-China Desk(중국 지재권 보호 데스크) : 각 센터 내 설치

금주 포커스

中 1월 수출입 29% 급감

– 해외시장 위축조업일 단축원자재 시세 불안 등 복합 요인 탓 –

– 환율 수단 보다는 수출기업 세제지원에 무게 둘 듯 –

□ 수출입 3개월 연속 마이너스

○ 중국의 1월 수출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해관총서가 11일 발표한 1월 대외무역 동향에 따르면 1월 수출입 교역액은 1417억9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감소함.

– 수출(904억5400만 달러)과 수입(513억4400만 달러)의 감소율은 각각 17.5%와43.1%를 기록함.

최근 3년 중국 1월 수출입 실적

(단위 : 억 달러, %)

	2009.1	2008.1	2007.1
수출입 총액	1,417.98(-29.0)	1,998.29(27.1)	1,573.60(30.5)
수출	904.54(-17.5)	1,096.55(26.7)	866.20(33.0)
수입	513.44(-43.1)	901.74(27.6)	707.40(27.5)
무역수지	391.09	194.80	158.80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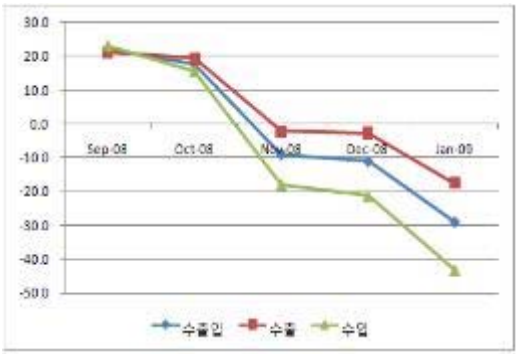
○ 이로써 중국의 대외무역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갈수록 하락 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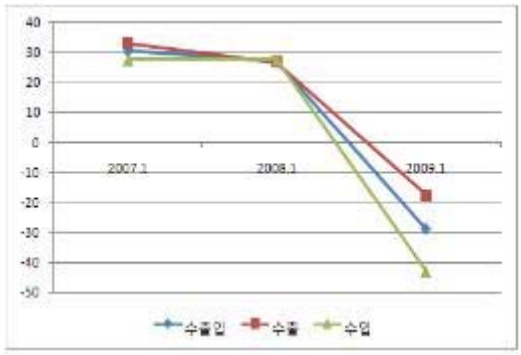
– 1월 수출과 수입의 감소 폭은 지난해 12월보다 각각 21.8% 포인트와 14.7% 포인트 하락

○ 최근 3년간 1월 실적 비교 시 2007년과 2008년에는 3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급추락세를 나타냄.

○ 무역수지는 391억9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2008년 1월과 2007년 1월 실적보다 각각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는 수입의 낙폭이 수출 감소폭을 압도한 때문임.

최근 5개월 중국 수출입 추이(%) **최근 3년 중국 1월 수출입 추이(%)**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

□ 주요국과 교역 일제히 감소

○ 중국의 수출비중 상위 5개 지역인 EU(21.9%), 미국(19.1%), 홍콩(10.5%), 일본(9.1%), 아세안(7.6%)으로의 수출이 각각 17.4%, 9.8%, 35.4%, 9.0%, 21.9% 감소한 가운데 20여 개 모든 주요국 시장으로의 수출 실적이 일제히 감소함.

○ 수입도 상위 5개 지역인 EU(15.8%), 일본(12.2%), 한국(9.8%), 아세안(9.7%), 미국(9.6%)으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21.5%, 43.5%, 46.4%, 49.7%, 29.9% 감소한 것을 비롯, 20여 개 주요 수입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 실적이 모두 급락함.

- 대홍콩.인도 수입은 60% 가까이 감소해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자원형 제품 낙폭 크고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제품은 실적 양호

○ 전체 수출의 78%를 차지하는 기전제품과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이 각각 20.9%와 28.0% 감소함.
- 그 중 전기전자제품(81억2000만 달러)과 기계설비(169억4000만 달러) 수출이 각각 28.3%와 16% 감소
- 30% 이상 감소한 품목으로는 강재, 집적회로, 무선전화기, 컨테이너와 함께 주요 곡물, 완성유 등이 있음.

○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대상 품목의 경우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보여 수출기업 지원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은 2008년 8월 이후 총 4차에 걸쳐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을 단행했으며 이로 인해 의류(105억1000만 달러), 신발(29억1000만 달러), 가방(11억5000만 달러)의 수출은 각각 5.7%, 10.6%, 8.3% 증가함.

○ 수입의 경우 기전제품과 하이테크 제품의 수입이 각각 39.3%와 44.0% 감소함.
- 주로 생산가공용 원자재인 수입품목은 제품별로 적게는 30%대에서 많게는 60% 이상 실적이 감소함.
- 가공무역용 수입설비의 경우 64.8% 감소해 일반무역 수입 감소율(40.1%)을 크게 상회함.

□ 교역 급감요인은 복합적

○ 지난 1월 중국의 수출입 실적이 급감한 원인은 매우 복합적임.

○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해외시장 위축 ▶위앤화 평가절상 효과 누적에 따른 수출 경쟁력 하락 및 수입수요 감소 ▶1월 춘절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단축(5일) 외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락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의 영향과 관련 아래와 같은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수출입 실적이 돌연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만은 아니며 수출기업들의 생산 사이클이 원자재 가격 파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임.
- 생산가공용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중국 수출기업의 특성상 수출오더 접수에서 생산, 수출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됨.
-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나타난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락은 외국 바이어와 중국 수출기업들의 상황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 기업들이 수출오더의 발주와 접수 보다는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남.
  · 중국의 수입상품은 대부분 수출가공용 원부자재인데 지난해 9월부터 수입상품 가격지수가 4개월 연속 급락해 연중 120에서 12월엔 90으로 2002년 3월 이래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함.
- 중국 수출기업들이 수출용 원자재를 신규 수입하기보다는 대부분 재고물량을 소화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 전체 교역실적 감소의 한 요인으로 작용함.

□ 전망 불투명,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단기 변수

○ 1월 수출과 수입이 동시 급감함에 따라 연초 올 교역 증가율을 GDP(국내총생산) 증가율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중국 상무부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음.

○ 일부에서는 올 1월의 경우 춘절 장기연휴 요인으로 인해 조업일수가 5일 줄어들어 교역실적 수치가 현실을 왜곡 반영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및 중국 경기침체, 국제 원자재 시세 불안정 등 큰 틀의 악화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임.

- 해관총서는 춘절 요인을 제외할 경우 1월 수출입 및 수입 감소폭은 8.2%와 26.4%로 줄어들며 수출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6.8% 증가했다고 발표함.

○ 중국의 경제구조 상 대외교역의 감소는 수입 부문에서 먼저 나타나고 이는 3~6개월의 시차를 두고 순수출에 반영되는 측면이 있어 향후 수출 감소 폭이 1월보다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글로벌 시장의 회복시기를 점치기 어려운 현실에서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입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국제 원자재 가격 수준임.

- 원자재 가격이 조기에 안정되고 중국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재고물량 처리가 마무리된다면 수출입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수도 있음.

○ 향후 중국의 대응 방향과 관련 일각에서는 중국이 위앤화의 평가절하를 시도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위앤화 평가절하에 따른 교역 상의 득실이 불확실하며 자칫 최근 확산되고 있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임.
- 이보다 현재 추진 중인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등 부작용이 적은 부분에 치중할 것으로 보임.

보고자 : KOTRA 베이징KBC 박한진 차장(chinapark@kotra.or.kr)
자료원 : 중국해관총서 및 베이징KBC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경제통상 뉴스

[정책동향]

中 3325개 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 기존 14% → 15%, 2월 1일부 시행 –

□ 방직품 환급률 인상 품목 통지 발표

○ 2009년 2월 1일부터 3325개 방직품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14%→15%로 인상

– 2월 4일, 원자바오(温家宝) 총리가 주최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방직업 진흥계획안을 심사 통과했고, 이 진흥계획에서는 방직품 수출 증치세 환급률은 현재의 14%에서 1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으나 구체품목은 공포되지 않음.

– 2월 5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방직품 의류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통지를 발표해 2009년 2월 1일부터 3325개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15%로 인상한다고 규정함. 2008년 8월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방직품에 대한 환급률 인상조치임.

최근 방직품 수출관세 환급률 조정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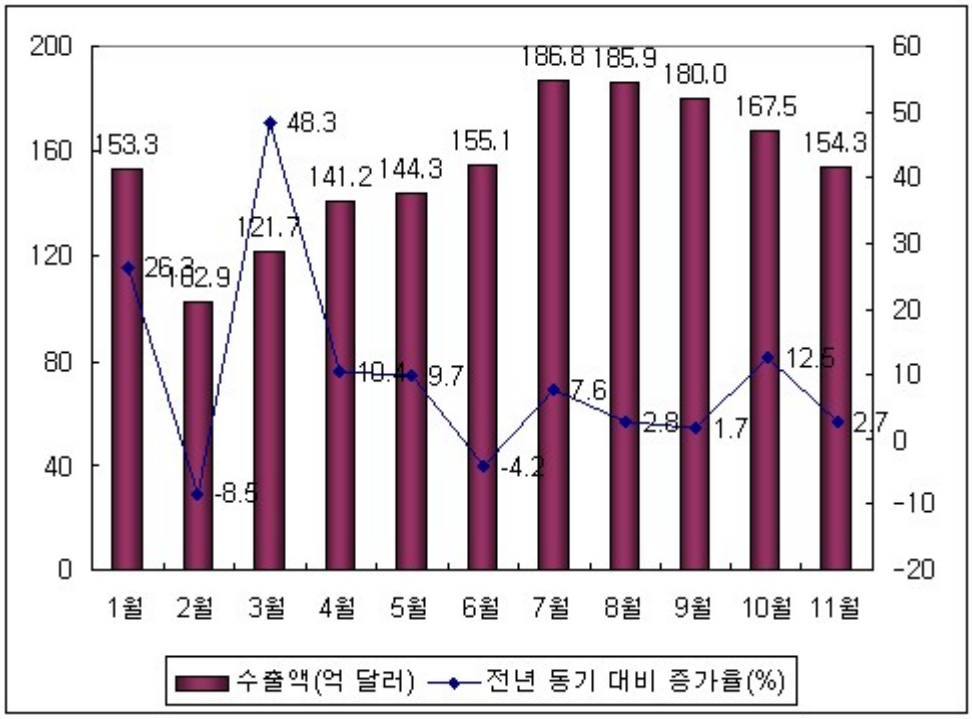
실시 시간	조정 전 환급률	조정 후 환급률
2008년 8월 1일	11%	13%
2008년 11월 1일	13%	14%
2009년 2월 1일	14%	15%

자료원 : 中国财政部

○ 2008년 1~11월, 방직품 의류 수출량 대폭 감소

– 세관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11월, 방직품 총 수출액은 1691억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8%에 그침. 그 중 의류 수출액은1087억 달러로 3.1% 증가했고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9.1%p 하락함.

2008년 1~11월 방직품 수출액 및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추이



자료원: 中国海关总署

□ 환급률 조정 품목

○ 3325개 품목 포함

- 환급률 조정에는 견사, 면사, 화학섬유 등 방직품과 일부 슬리핑백, 침구 등 14개류의 3325개 품목이 포함돼 수출업체들의 일부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

2월1일부터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품목

품목류	HS Code	제품명	환급률(%)
제50류	5004000000~5007909099	견, 견사 등	15
제51류	5106100000~5108101100	양모사 및 직물	15
	5108101990	섬수모사(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제외)(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의 것)	15
	5108109090	섬수모사(카드 또는 코움한 것에 한하며, 소매용의 것을	15

		제외)(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이하의 것)	
	5108201100	코움한 양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아상의 것)	15
	5108201990	코움한 기타 섬수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의 것)	15
	5108209090	코움한 기타 섬수모사(소매용의 것을 제외) (함유량이 전 중량의 85% 이상의 것)	15
	5109101100~5109909000	양모사 등	15
	5110000090~5113000000	섬수모사 및 직물	15
제52류	5204110000~5212250090	면사, 면직물	15
제53류	5306100000~5311009099	기타 식물성 방직품	15
제54류	전품목	화학 홀 섬유 등 인조필라멘트	15
제55류	전품목	인조스테이플 섬유	15
제56류	전품목	워딩 및 부직포 등	15
제57류	전품목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15
제58류	전품목	특수직물 등	15
제59류	전품목	도포한 직물 등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15
제60류	전품목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	15
제61류	전품목	메리야스 및 뜨개질의 의류 등	15
제62류	전품목	메리야스 및 뜨개질의 것을 제외한 의류 등	15
제63류	6301100000~6308000090	기타 제품으로 된 방직품 등	15
	6310100010~6310900090	기타 제품으로 된 방직품 등	15
제94류	9404290000	기타 재료의 매트리스	15
	9404301090	기타 우모 또는 다운을 내부에 결입한 슬리핑 백	15
	9404309000	기타 슬리핑 백	15
	9404901090	기타 다운과 우모를 내부에 결입한 기타 침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15
	9404902090~9404909000	기타 침구	15

자료원 : 中国财政部

□ 전망

○ 환급률 인상으로 방직품 수출이 다소 증가할 전망

- 2008년 8월과 11월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으로 2008년 11월 방직면사, 섬유와 관련 상품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됐던 것이 12월에는 동월 대비 0.4% 증가함.
- 12월, 의류부속품과 신발류 수출은 각 10.9%, 23.6% 증가돼 11월의 증가율 4.8%, 21.8% 대비 다소 증가됨.
- 북방국제그룹의 CEO에 따르면 방직품 환급률 인상으로 방직품 생산업체들의 이윤도 확대될 것으로 업체들이 주문을 받을 시, 적자에 대한 우려가 적어져 주문량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함.

○ 인상폭 1%에 그쳐 업체들은 추가적인 정부 지원책 기대

- 2월 1일부터 시행된 방직품 환급률 인상폭이 1%에 그치자, 방직업체들의 17% 인상 기대 대비 낮아 업체들은 추가적인 정부 지원책 발표를 기대하고 있음.
- 북방국제그룹의 통계에 따르면 이 회사의 2009년 연초의 주문량은 정부의 환급률 인상 등 정책발표로 이전 몇 개월 대비 다소 증가됐지만 전년 동기 대비 주문량은 2/3 감소한 상태이고 광둥성 기타 방직업체들도 유사한 처지라고 함.
-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환급률 인상 등 정책으로 일부 수출업체들의 경영난이 다소 해소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해외 수입업체들이 중국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을 핑계로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업체에 실질적인 이익은 적다고 밝힘.

보고자 : KOTRA 상하이KBC 김윤희 과장(alea@kotra.or.kr)
자료원 : 中国财政部, 金融界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경제동향]

中, 지난해 가공무역 위축 심각

- 가공무역 수출입 증가율 6.9%에 그쳐 -
- 당분간 침체 상황 유지될 전망 -

□ 중국 가공무역 수출입 증가율 하락세

○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입 증가율은 2007년 대비 6.9% 증가로 증가폭이 크게 떨어짐. 이는 중국 전체 대외무역 증가율보다도 10.9 포인트 낮은 수치로 지난해 중국 가공무역이 위축됐음을 보여주는 수치임.

- 가공 수출 총액은 67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9.3% 증가해 증가폭이 11.7포인트 하락했으며, 가공 수입 총액은 37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해 증가폭은 11.9포인트 하락함.

○ 가공무역이 중국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41.1%에 달함.

□ 2008년 중국 가공무역의 주요 특징

○ 11월부터 전년대비 증가율이 하락하기 시작, 12월 하락폭은 심화됨.

- 작년 8월까지 중국 가공무역 수출입 증가율은 77개월간 두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해옴. 9월부터 증가율이 한자릿수로 내려앉음. 11월에는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12월에는 하락폭이 더욱 커져 12월 수출은 486억 달러로 15.7% 하락, 수입은 237억 달러로 31.1% 하락함.

○ 외상투자기업의 지위가 더욱 견고해짐.

- 외상투자기업은 지난해 중국 가공무역 총액의 84.5%를 차지했으며, 이 비중은 2007년에 비해 소폭 상승함.
- 외상투자기업의 가공무역 수출입은 전년 대비 7.1% 증가해 내자기업에 비해 1.4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함.

○ 가장 큰 가공무역 대상국은 여전히 미국이 차지함.

- 미국은 지난해 가공무역 수출입 총액 1696억 달러로 중국의 전체 가공무역의 16.1%를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가공무역 대상국의 지위를 유지함.
- 그 뒤를 이어 유럽연합, 홍콩, 일본 등이 주요 가공무역 대상국임.

2008년 중국의 주요 가공무역 대상국 수출입 총액

(단위 : 억 달러, %)

국가	수출입 합계		수출		수입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미국	1695.8	3.7	1498.9	3.1	196.9	8.3
유럽연합	1664.7	13.4	1438.5	12.9	226.2	17.0
홍콩	1480.2	1.5	1418.9	2.5	61.3	-15.9
일본	1235.6	5.6	622.7	7.9	612.8	3.2
아세안	918.9	3.3	436.2	8.6	482.7	-1.0
한국	912.3	13.0	320.8	30.7	591.5	5.3
대만	810.6	0.1	126.8	6.6	683.8	-1.0

자료원 : 중국 해관통계

○ 지역별로 광둥, 장쑤는 하락세를 보이고, 중서부지역의 비율은 약간 상승함.

- 가공무역 수출입 총액이 4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지역은 총 5개 지역이며, 순위는 광둥, 장쑤, 상하이, 산둥, 저장성 순임. 이 5개 성시의 총액이 전체 가공무역 총액의 84.2%를 차지함.
- 이 중 광둥, 장쑤의 증가율은 각각 3.5%, 5.1%를 기록해 2007년 대비 각각 13.3포인트, 14.4포인트 하락함.
- 중서부지역의 가공무역 수출입 총액은 299억2000만 달러로, 중국 전체 가공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이며, 2007년 대비 약 0.2포인트 상승했음.

○ 수출상품의 구조는 일부 개선됐으며 주로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이 증가에서 감소세로 돌아섬.

- 가공무역 수출비중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기계, 전기 제품으로 전체 가공무역 수출액의 78.9%를 차지함.

2008년 중국의 주요 가공 수출 품목

품목	수출액(억 달러)	증가율(%)
기계전기	5325.9	10.6
의류의류 부속품	259.2	6.1
가구류가구 부속품	74.1	-1.8
플라스틱 제품	71.5	-2.7
완구류	48.6	-

자료원 : 중국 해관통계

○ 가공무역 제품의 내수전환 역량은 아직 부족하며, 특히 완제품의 내수전환은 지속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태임.

- 중국의 가공무역제품 중 내수전환 총액은 2007년 대비 11.2% 증가해 증가폭이 8.1포인트 하락함. 특히 4/4분기 3개월간은 연속적으로 한자릿수 증가율에 머뭄.
- 내수전환 제품 역시 원료, 자투리 원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95.1%로 완제품의 내수 전환은 극히 미미하며 그 비율 역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 전망 및 시사점

○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면서 중국의 가공무역 역시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 그리고 가공무역의 침체는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임.

- 가공무역은 일반적으로 수입가공수출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수입량이 가공무역 수출량의 선행지수가 될 수 있음. 최근 통계를 보면 가공무역 수입액의 감소폭이 수출액 감소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공무역의 침체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임.
- 가공무역을 주로 하는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진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가공무역의 위축이 지속될 것임. 2008년 하반기

이후 중국의 실제이용 외자액의 증가속도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11월 감소폭은 36.5%에 달함.

○ 가공무역은 중국이 외국자본을 유치하고 각종 산업 기술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창구임. 또한 많은 중국인의 취업에 영향을 주고있기 때문에 수출장려내수확대 정책 등 가공무역 및 관련산업 진흥 정책이 예상됨.

보고자 : KOTRA 다롄KBC 김우정 과장(yuting95@kotra.or.kr)
자료원 : 중국 해관통계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中, 하이브리드카 대폭 지원한다

- 하이브리드카 구매시 보조금 지원 -
- 대중 교통 분야에 시범 보급 실시 -

□ 하이브리드카 보조금 지원 정책 발표

○ 재정부에서 에너지 절약 및 하이브리드카 시범 시행 재정 보조금 관리 잠정 방법 발표(2009.1.23.)

- 지난 1월 24일 재정부와 과기부는 자동차 소비 확대, 자동차 산업 고도화, 신 에너지 차 산업화를 위해 베이징상하이충칭창춘다롄항저우지난우한선전허페이창사쿤밍난창 등 13개 도시에서 에너지 절약 및 하이브리드카 시범 보급을 시행한다고 밝힘.
- 이어 2월 5일, 재정부에서는 1월에 발표된 하이브리드카 시범 보급시행을 위해 에너지 절약 및 하이브리드카 구매 재정 보조금 지원 정책을 발표해 13개 도시에서 공식 실시한다고 밝힘.
- 이 지원정책의 에너지 절약 및 하이브리드카에는 혼합동력 자동차,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가 포함되며, 초기에는 일부 대중도시의 공공버스, 택시, 공무, 환경위생 및 우정분야에서 시범 시행 예정

○ 하이브리드카 산업 발전 추진

- 중국 과학기술부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자동차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동차 산업 고도화를 위해 10차 5개년 계획(2000~05년)과 11차 5개년 계획(2006~10년) 기간 에너지 절약과 하이브리드카 중대 프로젝트 추진
- 중국 과학기술부는 재정부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10개 도시 1000대 차량 전기자동차 시범응용 프로젝트(3년을 기한으로 매년마다 10개 도시에서 1000대의 하이브리드카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프로젝트. 교통수단에는 버스택시택배 자동차공무용 자동차 등이 포함)를 가동함.
- 최근 발표된 자동차진흥 계획에서도 향후 정부는100억 위앤의 자금을 투자해 업체들의 생산기술 제고, 하이브리드카 및 부품 등

발전을 추진할 것이며 에너지 절약 및 하이브리드카 시범 보급 작업을 개시해 베이징, 상하이, 충칭 등 13개 도시에서 에너지 절약 및 하이브리드카 보급을 확대하고 있음.

□ 보조금 지원 조건 및 표준

○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공동으로 에너지 절약 및 하이브리드카 구매 지원
- 중앙재정은 13개 시범 도시의 공공서비스 분야 단위에서 에너지 절약 및 하이브리드카를 구매, 사용하면 일회성으로 정해진 지원금을 지급함.
- 지방정부도 에너지 절약 및 하이브리드카 구매, 부대시설 건설, 자동차 보수 등에 대해 적당한 자금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함.

○ 조건에 부합되는 에너지 절약 및 하이브리드카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에너지 절약 및 하이브리드카 시범 보급 응용 프로젝트 추천 자동차 유형 목록에 포함돼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그 중, 혼합동력 승용차와 경형 상용 자동차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같은 유형 자동차 대비 휘발유 절약은 5% 이상, 혼합동력 대형버스 휘발유 절약은 10% 이상이여야 하며 혼합동력 자동차 최대 전기 공률과 휘발유 절약 비율은 관련부서의 심사를 받아 확정
- 생산업체는 축전지 등 주요 부품에 대해 3년 이상 또는 15만㎞ 품질보증을 제공해야 하고 친환경 자동차와 주요 부품 생산업체는 일정한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
- 그 밖에, 친환경 자동차 시범 보급지역은 입찰을 통해 에너지 절약 및 하이브리드카 유형구매 수량, 가격, AS 등을 확정해야 함.

○ 정부의 지원 금액은 자동차 유형, 휘발유 절약도 등에 따라 상이
- 동 지원정책에서는 현재 친환경 자동차의 가격이 일반 자동차 대비 높은 것을 감안해 보조금도 가격차이, 기술 수준 등에 근거해 지급함.
- 보조금 지급 표준 중, 최고 보조금은 최대 전기 공율 50% 이상인 연료전지 자동차로 구매 시, 자동차 한 대당 60만 위앤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에너지 절약 및 하이브리드카 시범 보급 도시의 구매단위는 구매한 자동차유형 수량 보조금 지원 표준 등에 근거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고 성급 재정부와 과학기술부는 심사 후 매년 3월 30일, 8월 30일 이전에 국가 재정부과학기술부에 보고한 후 국가 관련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함.

공공서비스용 승용차와 경형 상용자동차 시범 보급 시 보조금 지원 표준

(단위 : 만 위앤/대)

에너지 절약 및 하이브리드카	휘발유 절약비율	최대 전기 공율			
		BSG형	10~20%	20~30%	30~100%
혼합동력 자동차	5~10%	0.4	–	–	–
	10~20%		2.8	3.2	–
	20~30%	–	3.2	3.6	4.2
	30~40%	–	–	4.2	4.5
	40%이상	–	–	–	5.0
전기동력자동차	100%	–	–	–	6.0
연료전지자동차	100%	–	–	–	25.0

주 : 최대 전기 공율 비율이 30%이상인 혼합동력 자동차 보조 표준은 plug-in도 포함.

10미터이상 도시공공버스 시범 보급 보조금 지원 표준

(단위 : 만 위앤/대)

에너지 절약 및 하이브리드카	휘발유 절약 비율	연산연료전지 혼합동력 시스템	니케수소전지, 리튬이온전지/ 최대 용량 축전기 혼합동력시스템	
			최대전기공율 10~20%	최대전기공율 50%이상
혼합동력 자동차	10~20%	5	20	–
	20~30%	7	25	30
	30~40%	8	30	36
	40% 이상	–	35	42
전기동력자동차	100%	–	–	50
연료전지자동차	100%	–	–	60

주 : 최대 전기 공율 비율이 50%이상인 혼합동력 자동차 보조 표준은 plug-in도 포함.

자료원 : 财政部

□ 보조금 지원 정책 발표 영향

○ 친환경 자동차 및 부품 생산업체의 판매량 증가할 듯

- 중국투자컨설팅 사이트의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6월 중국 하이브리드카 판매량은 366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7.95% 증가함.
- 전문가에 따르면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은 기타 산업대비 금융위기 영향이 적은데다 정부의 지원정책도 발표되고 2010년 상하이 엑스포도 개최될 예정이여서 향후 친환경 자동차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 상하이 Pearl Hydrogen(攀业氢能源科技有限公司)사 관계자는 최근 동사의 연료전지 평균 판매액은 200만~300만 위앤에 달하고 60~70%는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해외 주문량은 증가돼 2009년 판매액은 배로 늘 것이라고 전망함.
- 상하이증권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신에너지 공공버스 주요 구매자는 각급 정부이고 생산업체들은 정책 지원도 받고 있어 향후 판매량은 증가될 것이지만 신에너지 승용차는 공공 대형버스 대비 산업발전이 늦다고 전함.

○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하이브리드카분야 투자 증가될 듯

- 1월 상하이자동차그룹은 향후 2년간 60억 위앤을 휘발유, 전기혼합 자동차와 전기 동력 자동차 연구개발, 제조에 투자할 것이라고 함.
- 창안(长安)자동차그룹은 이미 2억 위앤을 넘는 자금을 하이브리드카 프로젝트에 투자했고 치루이(奇瑞)사의 50대 혼합동력 자동차는 베이징 올림픽 서비스용으로 사용됨.
- 베이징 푸텐(福田)자동차주식회사는 지리적 우세로 이미 베이징 공공버스회사의 2009년 800대 혼합동력 대형버스와 자동차 차대(섀시) 주문 약속을 받아 시장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시사점

○ 중국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향후 친환경 자동차 소비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현재 중국에서는 에너지 절약 및 하이브리드카 시범으로 판매사용하고 있고, 관련 산업 특히 신에너지 승용차산업 발전이 늦은 편이어서 외국기업들의 선점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임.

※ 첨부 : 에너지 절약 및 하이브리드카 시범 시행 재정 보조금 관리 잠정 방법(2009.1.23일)(중문본)

보고자 : KOTRA 상하이KBC 김윤희 과장(alea@kotra.or.kr)
자료원 : 中国财政部, 上海证券报, 中国证券报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세계 최대 전기밥솥시장, 중국을 공략해야

유망사유 : 중국의 전기밥솥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나 아직 시장질서가 확립되는 과도기에 있으며, 우리 기업의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반면 성공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임. 일본의 파나소닉사 제품이 현지 시장점유율 3위인데 반해 한국의 브랜드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중국 전기밥솥 시장이 점차 확대, 고급화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 기업의 전략적이고 과감한 시장진입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1. 시장동향

□ 시장규모

○ 중국 소형가전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기밥솥시장
- 중국의 소형 가전제품시장은 개혁개방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전기밥솥의 경우 성장이 가장 빠른 제품
- 중국전기공업연감(2008)에 따르면, 2007년 중국의 전기밥솥 생산량은 총 1억 대 규모로 전년대비 16.6% 성장했으며, 전 세계 보급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2006년 전기압력밥솥의 중국 시장 매출액은 총 12억 위앤을 기록했으며, 2007년에는 총 28억 위앤을 기록,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성장

□ 수요 특징

○ 중국산 브랜드에 대한 높은 호감
- 중국 고유 브랜드인 메이디(美的)와 수보얼(苏泊尔)이 각각 시장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파나소닉의 제품이 시장점유율 3위
- 중국 대표적인 가전제품 전문마트인 쑤닝(蘇寧)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은 보온기능이나 전자지능 기능이 있는 고급품보다는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소비자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입 고급제품에 비교하면 중국 브랜드의 품질이나 안전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2. 경쟁 및 수입동향

□ 현지생산

○ 일본의 파나소닉제품은 시장점유율 3위를 차지하며 기타 필립스나 산요 등 외자기업 제품들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브랜드 제품은 아직 시장에서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 이미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쿠쿠홈시스와 부방테크론, 웅진쿠첸 등 한국의 기업이 중국 칭다오지역과 항저우에 생산과 유통의 거점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입동향

○ 중국 내 수입동향

전기압력밥솥 중국 내 수입동향

(단위 : US$ 천, %)

성(省)	2007		200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상하이(上海)	694	-15.5	1,405	102.4
광동성(廣東省)	232	29.3	517	122.2
산동성(山東省)	364	3,556.7	504	38.3
베이징(北京)	286	4.7	392	36.9
랴오닝성(遼寧省)	29	187.5	381	1,232.9
저쟝성(浙江省)	156	127.4	249	59.8
쟝쑤성(江蘇省)	75	1,013.6	47	-36.8
총계	1,859	31.6	3,596	93.5

자료원 : kita.net

- 중국의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상하이 지역에서의 수입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광둥성, 산동성 순
- 2008년도 수입 증가율은 전년대비 1232.9%가 증가한 랴오닝성이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122%가 증가한 광동성으로 나타났음.

○ 중국의 국가별 수입동향

중국의 국가별 전기압력밥솥 수입동향

(단위 : U$ 천, %)

성(省)	2007		2008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일본	54,438	4.2	57,068	4.8
인도네시아	37,103	26.7	48,567	30.9
미국	33,439	-2.1	38,231	14.3
한국	9,996	100.5	17,213	72.2
태국	15,652	48.2	15,601	-0.3
필리핀	9,644	20.5	14,485	50.2
말레이시아	12,253	41.7	12,872	5.1
총계	275,392	18.3	324,737	17.9

자료원 : kita.net

○ 국가별 수입동향에서 일본 브랜드 수입이 가장 많았으며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미국에 이어 네번째로 나타났음.
- 한국산 브랜드 수입은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과 2008년 각각100.5% 와72.2%의 성장률을 기록해 전체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시장 전망

○ 소형가전제품, 강제성 품질인증과 전력효율등급 통해 시장 질서 바로잡을 것
- 중국 가전협회 천강 부서기관은 소형가전시장, 특히 전기밥솥의 경우 상품의 품질검사기준을 강화하고 강제성의 품질평가를 진행해 시장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임.

- 강제적으로 1~5등급의 소비전력 등급을 부여할 것이며 소비전력 효율이 낮은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선포하며 이 계획이 시행되면 최소 10%에 달하는 기준미달의 전기밥솥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한국산 제품 현지평가

○ 한국의 압력밥솥 품질 뛰어나지만 유통채널 부족하고 가격 너무 비싸다는 평가

- 한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중국인들이나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한국의 전기밥솥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은 편으로 몇몇 한국의 브랜드도 알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중국밥솥과 비교할 때 기능이 다양하고 밥의 보온기능도 뛰어나며 맛까지 좋다고 대답. 하지만 대부분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평가
- 일반 중국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밥솥 브랜드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중국시장에서 시장인지도 또한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며 좀더 공격적인 시장진입의 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3. 진출방안 및 관세비관세 장벽

□ 진출방안

○ 세계 최대 쌀 소비국가, 중국시장 점령은 곧 세계시장 점령

- 중국인구의 일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96kg 가량으로 꾸준한 인구증가에 따라 쌀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동북미와 같은 고품질 쌀의 소비가 증가함과 더불어 전기압력밥솥과 같은 고급 전기밥솥의 소비량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
- DailyNK가 선정한 북한 상류층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10대 상품 중 중국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한국의 쿠쿠 압력밥솥이 최고 인기상품에 뽑히기도 했으며 교민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아직은 아는 사람만 아는 브랜드라는 평가임.

- 중국 칭다오에 생산거점을 확보하고 있는 쿠쿠홈시스의 관계자는 최근 중국 동북지역 TV광고, 북경지역 버스광고, 상해지역 백화점 광고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밝힘.
-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밥솥 시장으로서 현재 새로운 시장질서가 확립되는 과도기에 있으며 우리 기업의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반면 성공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중국 전기밥솥시장이 점차 고급화 돼가고 있는 시기에 우리 기업과 제품이 좀더 과감한 시장진입을 시도해야 한다고 판단됨.

□ 전기밥솥 수입 관세 정보

Product	전기 밥솥
HS Code	8516-603000
Description	Electric cookers
Special Provision	없음
Unit	대
Duty Rate	8%
VAT Rate	17.0%

자료원 : 2008 중국세관수첩

○ 중국내 HS Code는 8516 6030 관세율은 8%이며 증치세가 17% 부과됨.

○ 검사 필수 항목으로는 CCC(중국국가인증센터) 검사인증을 필요로 함.

보고자 : KOTRA 칭다오KBC 김병호(ivviivvi@kotra.or.kr)
자료원 : 21CN.com, 관련 뉴스자료 종합, 현지 인터뷰자료 종합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수출대금 미결제 사례로 본 홍콩바이어 상담 시 유의사항

– 페이퍼 컴퍼니 점검, 신용조사 필수, 광둥성 투자 홍콩기업도 유의 –

□ 홍콩, 수출대금 미결제 사건 급증

○ 2008년 4분기 수출대금 미결제 사건 급증

– 홍콩 코리아비즈니스센터에 따르면 2008년 3분기까지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대금 미결제 사건 조사 의뢰는 2건에 불과했으나 2008년 4분기에는 4건으로 2배 급증했음. D/A, D/P 거래를 하면서 수출보험공사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수출대금 미결제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1월에도 2건이 접수돼 최근 금융위기, 경기침체에 따른 실질적인 파급효과가 2008년 4분기부터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함.

○ 기업 파산 4년 내 가장 많아

– 작년 11월 파산 신청 건수는 1223건으로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음. 이는 지난 10월의 986건보다 24% 급증한 것임. 일부에서는 지금은 금융위기의 시작일 뿐, 앞으로 대기업 감원이 본격화되면 기존 지출을 지속하고 있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파산신청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 기업들도 신용경색으로 인한 자금 순환 중단으로 현재 상당수가 부도 신청을 하고 회사를 정리하고 있으며, 대기업들도 사업축소 및 감원을 추진하고 있음.

□ 수출대금 미결제 사례 및 대응 전략

사례 1. 페이퍼 컴퍼니 유의

한국의 D사는 러시아에 본사(K그룹)가 있는 홍콩 지사 C사와 함께 1년 4개월간 거래를 했음.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금융권 신용경색으로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음. D사는 홍콩의 C사가 사무실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만이 유일한 접촉 방법으로 D사의 실제 재무상태와 사업추진현황 등을 파악하는데 애로가 많았음.

○ 대응전략

- 홍콩은 금융, 물류, 무역의 아시아 허브 도시로, 매년 많은 기업들이 홍콩에 법인 설립을 하고 있음. 이들 대부분은 대금결제 처리를 위해 법인을 설립해 기업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음. 사무실은 대리회사 주소를 이용하고, 연락처도 대리회사 연락처를 사용함.
-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홍콩기업들과 거래할 때는 홍콩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주책처(Companies Registry) 홈페이지에서 기업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기업 정보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주소는 다음과 같으며, 11~22홍콩달러의 비용이 소요됨.(www.icris.cr.gov.hk/csci/) 또한 홍콩무역발전국 웹사이트(globalcontactshk.hktdc.com)를 이용하면 종업원수, 설립연도, 대략적인 매출액 규모 등의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확인한 연락처로 기업에 전화를 걸어볼 필요가 있으며, 회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사례 2. 불황을 틈타 계속된 트집

한국의 K사는 홍콩 바이어 E사에게 철강 원자재를 납품했으나 최근 불황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이미 납품한 제품에 대해 배송지연, 제품 품질 문제 제기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수출대금을 3개월간 지체하고 미결제액에 대해 약 50%의 할인을 요구함. 만약 한국 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Ship Back을 요청함. 결국 홍콩 바이어 E사는 최근 불황으로 한국 기업들도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음 파악하고 이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임.

○ 대응전략

- 한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계약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임. 만약 문제 발생 시 홍콩기업들은 계약서에 근거해 트집을 잡기 때문에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계약 전 꼼꼼히 체크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
- 제품 품질 이상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약서에 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에 불량제품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Ship Back의 경우 계약서에 까다로운 조건을 명기할 필요가 있음. 홍콩 바이어들은 비교적 계약서를 준수하는 편이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근 한국 기업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홍콩바이어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재무상태를 이야기하며 대금 상환을 호소할 필요는 없음. 오히려 바이어들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더 큰 폭의 할인율을 요청하기도 함.

사례 3. 광둥성에서 제조하는 홍콩기업 경계

한국기업 S사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광둥성에서 제조업을 하는 홍콩 바이어 K사와 거래하다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 홍콩 바이어 K사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 악화와 신노동법, 가공무역금지 강화 등의 제도 개선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며 대금 상환을 지체하고 있음. K사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금 상환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해보임.

○ 대응전략

- 광둥성에는 홍콩 투자진출기업 약 6만5000여 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특히 광둥성 둥관시에는 외자기업의 50% 이상이 홍콩 투자진출기업으로 광둥성 경제에서 홍콩 투자진출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음.
- 하지만 2007년 말 가공무역금지 강화, 2008년 초 신노동법 시행, 2008년 9월 금융위기로 인해 광둥성 비즈니스 환경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음. 이로 인해 2008년 4분기부터는 기업 도산이 속출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야반도주해 노동자들이 시위를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S사는 2008년 초 광둥성 비즈니스 환경 악화 초기에 K사와 거래해 결국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광둥성 기업 환경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파산하는 기업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광둥성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홍콩기업들과 거래할 때는 최근 재무상태와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거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사례 4. 채무관계 조사 철처

한국기업 S사는 홍콩 바이어 P사와 약 18개월 동안 순조로운 거래를 했으나 작년 말부터 거래대금 상환이 지체되기 시작하더니 결국 P사 대표가 문을 닫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함. 추후 S사는 홍콩 바이어 P사의 재무관계를 파악해 본 바 이미 채무불이행으로 시티은행에 고소당해 있었으며, 복잡한 채무관계로 채권자들의 사무실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함. 이외에도 S사는 2년간 거래하던 홍콩 바이어 B사와도 P사와 비슷한 이유로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음. B사 역시 1천만 홍콩달러의 엄청난 은행 대출금을 받아왔으나 최근 신용경색으로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자 결국 B사는 이를 버티지 못하고 부도를 냈음. S사는 엄청난 대출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음.

○ 대응전략

- 홍콩 기업들은 회계 결산 후 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홍콩주식시장 상장 기업을 제외하고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거래 전에 기본적인 재무상태와 신용 관련 자료를 요청해 1차 검사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불황이고,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바이어의 신용파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D&B(Dun & Bradstreet, 무디스의 모회사로 기업들의 신용보고서 및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조사기관이며, 214개국 7500만 개사의 기업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사의 신용조사를 의뢰하면 기업 전반적인 정보에서부터 1년 전의 신용조사까지 가능하므로 이용해 볼만함. 1회 수수료는 조사항목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1880홍콩달러가 부과되며, 소요기간은 신청 후 1주일임.

□ 시사점

○ 2009년 홍콩경제성장 마이너스 전망, 거래 전 신용관계 철저히 파악
- 2008년 3분기까지는 대부분의 경제기관들이 올해 홍콩의 경제성장률을 평균 1~3% 상승으로 전망했으나 최근에는 최저 마이너스 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는 2003년 사스와 비교해서 다른 점은 경기 침체가 홍콩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 이처럼 홍콩의 경제성장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한 가운데, 금융권들은 대출해 주었던 자금을 조속히 회수 중에 있으며, 대출을 아예 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홍콩기업들의 신용이 매우 안 좋으며, 경기침체로 재무상태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홍콩 기업과 거래할 때는 신용이나 재무상태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할 것임.

○ 페이퍼 컴퍼니 기승 우려
- 홍콩은 세계에서 법인설립과 청산이 가장 자유로운 국가 중에 하나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 지난 1998년 IMF 불황일 때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돈을 가로챈 후 신속하게 회사를 청산하고 사라지는 무역사기가 종종 발생했음. 따라서 최근 경기 침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무역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임.
- 한국 수출회사들은 거래 전 상기에서 언급한 신용조사 기관이나 간단한 기업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홍콩정부 기업주책처를 이용해 최대한 홍콩바이어의 기업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광둥성 경제동향에 주목
- 광둥성 경기 악화가 최근 심화되고 있으며, 작년 10월까지 동기대비 외국인투자기업이 약 23.43% 감소했으며, 270만 명의 실업자도 발생했음. 또한 전자제품완구섬유 기업을 중심으로 파산하

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기업들도 출현하고 있음.

- 홍콩 총상회 천진런(陳鎭仁) 회장은 광둥성에 투자한 6만5000여개 홍콩기업 중, 2008년 말까지 약 4분의 1이 문을 닫았을 것으로 추정했음. 또한 홍콩중소기업협회는 2009년 약 3000개사가 추가로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함.
- 이처럼 광둥성 경제가 호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광둥성에 투자한 홍콩기업들의 경영 상황도 2009년에는 계속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광둥성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홍콩기업과 거래 시에는 광둥성 경제 및 기업 동향에 주목해야 함.

보고자 : KOTRA 홍콩KBC 박은균 과장(hanguo@kotra.or.kr)
자료원 : 홍콩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자체분석, 홍콩언론 종합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단신뉴스]

中, 개인소득세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 해야

○ 연소득이 12만위앤 이상의 납세인은 납세연도 종료 후 3개월내(매년 1.1~3.31일까지)에 평소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해당 세무기관에 자진 납세신고를 해야 함

- 중국경외에서 소득을 취득한 납세인은 납세연도 종료 후 30일내에 중국국내의 관할 세무기관에 납세신고 해야 함

○ 자진납세 신고 범위

① 연소득 12만 위앤 초과

- 단, 중국내 주소가 없고, 납세연도에 중국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함.

② 중국 경내의 두 지역 또는 둘 이상의 지역에서 임금 및 급여를 취득한 경우

③ 중국외로부터 과세대상 소득을 취득한 경우

- 중국내 주소가 있거나, 주소가 없지만 납세연도 기간 중국 거주기간이 1년을 채운 경우 주관 세무당국에 신고 필요

④ 소득을 취득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

⑤ 기타 국무원이 규정한 경우

○ 신고 대상 11가지 소득 항목

- 급여 소득, 개체공상호(个体工商户)의 생산, 경영 소득, 기업 및 사업단위에 대한 도급경영, 임차경영 소득, 노무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 이자 및 배당 이윤 소득, 재산임대 소득, 재산양도 소득, 우연 소득, 국무원 재정부문이 확정한 기타 소득 등

○ 신고시기 및 방법

- 會計年度 종료 후 3개월 이내 (1月1日~3月31日). 이후 최근의 신고 기간은 2009년1월1일~3월31일이 됨.
- 개인은 [개인소득세납세신고표]를 작성하여 직접 세무당국에 가거나, 우편 및 인터넷 이용 가능

. 납세자의 신분증(여권) 복사본 등 주관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 소득원이 두곳 이상인 경우, 한곳의 소득원이 소재한 주관세무 당국 선택

(주) 연초에 소득 12만위앤 이하로 신고를 한 사람이, 당해 년도에 소득이 12만위앤을 초과하면 년도 종료 후 3개월내에 재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 벌금이 부과됨.

○ 납세신고서는 주관 세무기관의 납세 신고 접수처 혹은 해당 세무국사이트(예를 들면 상하이세무국사이트 : www.csj.sh.gov.cn)에서 다운할 수 있음

○ 자진신고 하지 않을 경우의 법률 책임

① 자진신고 불이행(세수징수관리법 제62조에 근거)

- 세무기관은 2천위앤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엄중한 경우 2천위앤 이상 1만위앤 이하의 벌금을 부과

② "탈세"의 경우(세수징수관리법 제63조에 근거)

- 미납 또는 부족분에 대해 세금의 50%~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③ 세금계산근거 허위 변조(세수징수관리법 제64조에 근거)

- 세무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5만위앤 이하의 벌금을 부과

※ "개인소득세 자진신고 방법 관련 주요 Q&A"(투자진출 A to Z) 뒤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원 : 국가세무국 공고 '(개인소득세 자진신고방법)个人所得税自行申报方法' 등 현지 언론 종합
자료정리 : KOTRA 중국지역본부

[중국 지재권 단신뉴스]

중국, 2008년도 특허출원 현황과 분석

□ 중국 2008년도 특허등록40만 건 넘어서, 특허신청건수는 80만 건에 달해

○ 2008년 중국 국내 특허출원건수 35만 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
- 중국에 출원 중인 특허 총 누적건수는 480만 건에 달하며, 출원된 건수는 250만 건을 넘어섰음.
- 2008년도 중국 총 출원건수인 41만1982건 가운데 중국 내 출원 중인 특허는 35만2406건이며, 이는 전년대비 16.8% 증가한 수치임.
- 국외에서 신청해 출원 중인 특허는 11만1184건으로 3.5% 소폭 상승했으며 국외 특허의 출원건수는 5만9576건으로 전년 대비 18.8%가 증가했음.

2008년 중국 특허 출원신청 및 출원 현황

(단위 : 건수, %)

구분		출원신청	출원
국내	발명	194,579건(27.1%)	46,590건(45.8%)
	실용신안	223,945건(24.4%)	175,169건(18.0%)
	디자인	298,620건(17.8%)	130,647건(7.7%)
	계	717,144건(22.3%)	352,406건(16.8%)
국외	발명	95,259건	47,116건(30.9%)
	실용신안		1,506건(-8.4%)
	디자인		10,954건(-12.4%)
	계	111,184건(3.5%)	59,576건(18.8%)
계		828,328건(19.4%)	411,982건(17.1%)
총 누	적 건수	4,853,506건	2,501,268건

주 : ( )는 전년 대비 증감률임.

□ 2008년 중국 특허 출원의 6가지 특징 분석

○ 특허출원 신청 지속적 증가, 발명특허 출원 급증
- 지난해 대지진과 경제위기 등의 악재 속에서도 중국의 특허출원 숫자는 꾸준히 증가해 총 80만여 건의 출원신청이 이뤄졌으며, 이는 전년대비 19.4%가 증가한 수치임.
-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발명특허의 출원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 이는 중국 정부가 제창한 자주 혁신과 독자기술개발의 슬로건을 꾸준히 이끌어온 결과물이라는 평가
- 중국 발명특허 출원신청은 전년대비 27.1%가 증가했고 출원된 발명특허는 무려 45.8%가 증가했음.

○ 중국내 직무 발명출원, 비직무 발명출원 앞서
- 2008년 직무 발명특허가 처음으로 비직무 발명특허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요소로 기업의 특허출원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

2008년 중국 직무특허 신청 비율

직무특허 출원신청 (점유율 50.8%)	기업	295,510건(32.1%)
	전문화대학	45,145건(38.1%)
	연구소	18,612건(31.8%)
	기관단체	5,119건(-12.2%)
	계	364,486건(32.0%)
비직무특허 출원신청 (점유율 49.2%)		352,758건

주 : ( )는 전년대비 성장률

○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의식과 인지도 향상, 경쟁력 갖춘 기업의 증가
- 중국 기업의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것에 대해 중국정부는 대대적으로 추진한 지적재산권전략을 통해 중국 내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의식과 인지도가 향상 됐다는 결과로서, 중국에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특허신청 기술영역의 고른 발전

- 중국내 특허출원에 있어 하이테크기술을 포함해 통신, 화학공정, 환경기술, 운송기술, 광학기술, 의학기술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고른 기술의 혁신을 이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국제특허 출원,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비중 높아져

- 중국은 자국 기술의 국제특허 등록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반도체, 원자핵공정, 의학기술, 자동차엔진, 음향영상기술 등 분야의 국제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특허 심사능력의 성장

- 2008년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전년대비 17.7%가 상승했으나, 그 중 최고급 수준의 심사평가과정이 필요한 혁신기술 발명특허의 출원수는 9만3706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37.9%가 증가했다고 밝힘.

□ 시사점

○ 중국은 2008년 10대 판례 중 2건이 지적재산권 관련법안으로 선정되는 등 관련 법률의 정비를 통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구조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혁신과 자주기술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브랜드로 성장하는 기업이 많아져야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표명함.

보고자 : KOTRA 칭다오KBC 김병호(ivviivvi@kotra.or.kr)
자료원 :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홈페이지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유력기업 구매정보

China Potevio Co., Ltd. – 통신, 설비 분야

1. 기업정보

□ 기업 소개

○ 중국 초대형 국유그룹으로, 산하 자회사 5개사가 모두 상해, 심천, 홍콩 증시에 상장됨.
○ 주요 산업분야는 통신, 전기전자, 방송이며, 해당 분야의 정부 프로젝트 참여 경력 다대
○ 현재 Nokia삼성MotorolaSony EricsonPanasonic 등 기업의 중국내 합작파트너임.

□ 기본정보

회사명	China Potevio Co., Ltd.(中國普天信息産業股份有限公司)		
설립연도	2003년	대표자명	邢炜
본사 소재지	베이징	종업원수	2만6000명
연간 매출액	46억 달러	영업이익	n/a
홈페이지	www.potevio.com	비고	등록자본금 : 190,000만 위앤

2. 구매정보

□ 구매품목

○ 연간 구매금액 : 비공개

- 주요 구매품목

품목	구매금액(U$천, 2008년 기준)
WiMax/WiFi（无线接入设备）	비공개
Video conference system（视频会议系统）	비공개
DVR system（安防监控系统）	비공개
Bluetooth Equipment（蓝牙设备）	비공개
RFID（射频识别－电子标签）	비공개

자료원 : China Potevio Co., Ltd. 제공

○ 해외 구매현황
- 아직까지 상기 품목을 수입한 적은 없으며, 더 경쟁력있는 제품 확보를 위해 수입을 계획함.
- 제품별 세부 규격에 대한 요구사항은 공급업체에 직접 제시할 예정임.

□ 구매조직

○ 구매조직 일반현황
- 우선 기술부서와 접촉하는 것이 관례이며, 기술부서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 검증된 제품은 구매부서 책임자에게 전달됨.

○ 기술부서 담당자 정보
- 성명 : Ms. Bian jing
- 소속부서명 : 국제기술합작부
- 직위 : 총경리
- 전화번호 : 86-10-6268-3836
- 팩스번호 : 86-10-6268-3819
- 이메일 : bianjing@potevio-oversea.com
- 주소 : 北京市海淀北二街6号(100080)

□ 對韓 구매관심도

○ 이 회사는 한국 삼성과 거래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은 IT산업에 우수한 경쟁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돼 경쟁력 있는 한국기업의 제품을 소싱할 수 있기를 기대함.

○ 현재까지는 대형 프로젝트를 위주로 해외기업과 협력했으나 최근에는 품질, 가격,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완제품을 수입해 자사 브랜드로 중국 내수시장 및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지역에 판매할 계획임.

3. 우리 기업의 접근방법

□ 기술부서 담당자의 조언

○ 기술력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일반적인 제품은 이미 중국시장에 많이 유통되고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차세대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다대함.

○ 해외수출 경험 보유 또는 수출을 위한 기본조건 구비의 필요성
- 동사는 큰 규모의 국유기업으로 신규제품 소싱 시 경쟁력이 이미 검증된 제품을 선호하며, 실력있는 해외 중소기업과 거래 희망함.

○ 업계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수집에 대한 요구
- 기술부서 담당자들간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첨단기술제품의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함.
- 기타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거래 후 문제발생 시에도 적극적인 대처자세를 보여주는 것은 확고한 신뢰감 구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임.

○ 중국 내 개최되는 전시회 적극 참가를 통한 공격적 마케팅 전개 필요
- 중국 내 개최되는 업계 대표적인 전시회에 적극 참가해 업계 내 인지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됨.

보고자 : KOTRA 베이징KBC 양진영 과장(jinyyang@kotra.or.kr)
원문 : 글로벌 윈도우 무역통상(http://www.globalwindow.org)

[금주의 연구보고서]

중국 현지법인 사업조정 요령 해설

최근 중국 내 기업경영환경 급변과 경기하강 추세가 글로벌 경제 위기와 맞물리면서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 및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중국진출 기업계 전반에 걸쳐 이전, 철수를 포함한 대대적인 사업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무단 철수하는 기업이 증가하자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상무부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는 12월 19일 공동 발표문을 통해 악의적인 채무 불이행 및 임금 체불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경로를 통해 용의자 도주국에 대해 용의자 인도 청구 또는 민사(民事)의 형사(刑事)소송 전환 청구 등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 조치가 현재로서는 특정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적어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우리 기업들의 적절한 대응 노력이 요청된다.

적지 않은 중국진출 기업들이 사업의 조정, 축소 또는 철수를 모색하고 있으나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국 현지법인의 사업조정 요령에 대한 이해가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서는 중국 내 사업조정의 주요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분할과 합병, 지분양도, 이전, 청산 등에 대해 처리 요령을 다룬다.

- 목 차 -

Ⅰ. 중국 내 기업환경 변화와 사업조정
중국 내 기업환경 변화
사업조정의 필요성 및 유형

Ⅱ. 주요 유형별 사업조정 요령
분할과 합병
지분 양도
이전
청산

작성자 : KOTRA 베이징KBC 박한진 차장(chinapark@kotra.or.kr)
※ 세부내용 : 글로벌 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발간자료>기획조사

중국 현지법인의 사업조정 전략과 대책

- 목 차 -

중국법인의 인력 구조조정 전략
(한글버전)
(중국어버전)
- 팡시아오(方曉) 노동관계법무고문 (上海瑞海企业管理服务有限公司)

중국사업의 구조조정 전략
첨부 :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조정 전략과 실무대책
- 안교석 회계사 (중국 칭다오 안교석기업관리자문회사)

참고자료 1 : 감산, 생산정지에 따른 임금조정 문제
참고자료 2 : 노동합동 만기(滿期) 고용종료시 체크포인트 /끝/

※ 세부내용 : 글로벌 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발간자료>전체

※ 관련내용 온라인 동영상은 글로벌 윈도우(http://www.globalwindow.org)>동영상정보>온라인설명회 참조

투자진출 A to Z

개인소득세 자진신고 방법 관련

문의1)
개인 자진신고 대상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1)
(이하 실시조례) 제36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5가지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① 연소득 12만위앤 초과
② 중국내 2곳(또는 2곳 이상)의 소득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임금 및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③ 중국외로부터 과세대상 소득을 취득한 경우
④ 납세대상 소득을 얻었음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경우(개인사업자 케이스 등)
⑤ 국무원이 정하는 기타의 상황

문의2)
연소득이 12만위앤을 초과하고 평소소득을 규정대로 납세했는데도 연초에 다시 자진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답변2)
그렇습니다. 평소에 취득한 각종 소득을 매월 납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초에 본 방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담당 세무기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3)
연소득이 12만위앤 이상인 경우 에서 연소득은 어떤 내용을 포함합니까?
답변3)
다음과 같은 11가지의 합계 금액이 12만위앤 이상이라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임금, 개인사업 수익, 하청수익, 용역수익, 이자수익, 원고료수익, 특허권수익, 이자 및 배당 등 수익, 임대료수익, 양도수익, 일시(우발적)수익, 국무원재정부문이 정하는 기타 수익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개인소득세법 및 관련 실시조례가 규정한 공제 가능한 소득 및 납세전에 공제할 수 있는 소득은 연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규정에 의하여 받는 보조금이 해당됩니다. 즉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13조에 언급된 정부 특수보조금, 기타 보조금; 복리비, 부양금, 실업보험금, 보험배상금; 국가규정에 의하여 받는 간부 및 직원의 household allowance, 퇴직금;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제25조 규정에 규정된 양로, 의료, 실업보험 및 주택보조기금 등이 해당됩니다. 상기 규정한 공제할 수 있는 소득 외에 기타 경감 혹은 공제 세액은 연소득에 산입해야 합니다.

문의4)
연소득 12만위앤 계산에 있어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4)
법정비용을 공제하면 안 되는 경우와 법정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1. 공제해서는 안 되는 경우
① 임금 및 보수 소득
② 노무서비스 제공 소득, 저작활동 소득, 특허사용료 소득
③ 재산(財産) 임대 소득

2. 공제할 수 있는 경우
① 개인사업자의 소득
- 납세연도의 총수익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 등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기준이 됨
- 정기적으로 정액을 징수한 경우, 수익총액 x 적용세율 계산후의 금액이 기준이 됨

② 재산 양도로 인한 소득:
- 재산의 원(原)가치와 양도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및 제반비용 공제 후 잔액을 의미함

문의5)
납세신고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5)
납세신고표는 각 지방세무국(대련시의 경우 대련시 지방세무국 홈페이지www.dl-l-tax.gov.cn)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거나, 직접 지방세무국에 가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의6)
연소득 12만위앤 이상인 개인이 자진신고시 제출해야 한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6)
연소득 자진신고시 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담당 세무기구에 제출하는 동시에 신분증(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7)
연소득이 12만위앤 이상 개인이 신고해야 할 기한은 언제입니까?
답변7)
양력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담당 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8)
연소득이 12만위앤 이상인 개인은 반드시 세무기관 가서 신고해야 합니까?
답변8)
반드시 세무국에 가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국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고, 우편송부 방식의 신고, 직접 담당 세무기구에 가서 하는 신고 등이 가능하고, 담당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방식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납세의무자가 우편으로 신고할 경우에 우체국이 발행하는 영수증이 신고증빙서가 되고, 우체국 날인의 날자를 신고일자로 간주합니다. 타 지역에서 송금 방식을 활용하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무국 웹사이트에서 담당 세무국의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고, 송금시 부가정보와 용도란에 해당 개인소득세 금액과 납세의무자의 신분증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우편방식으로 납세신고표를 송부할 수 있지만, 해당 세금은 직접 세무국에 가서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대리인 혹은 타인에게 위탁하여 납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납세의무자는 신고표에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문의9)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답변9)
세수징수관리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규정된 기한(납세년도 마감 후 3개월) 내에 신고서 및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국은 2,000위앤 이하의 벌금부과와 함께 기한을 정해주고 납부를 재차 요구합니다.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에 2,000위앤 이상 10,000위앤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한편, 세수징수관리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일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무국은 납부하지 않은 세금 및 관련 체납금을 징수하고 해당 금액의 50% 이상에서 5배 이하의 벌금을 징수합니다.

문의10)
타인에게 위탁하여 납세 신고하고 대리인의 문제로 세금을 과소 납부하게 될 경우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답변10)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이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자가 미납금 및 체납금을 납부해야 하고 세무대리인은 해당 세금의 50% 이상에서 3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문의11)

연소득이 12만위앤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진신고 대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11)

중국 경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는 없지만 중국 경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중국 경외로부터 소득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납세년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중국 경내의 주소지 지방세무국에 납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료원: 국가세무국 홈페이지

현지법인 재투자와 한국법인 투자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동관에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법인공장이 있으며, 북경에 투자하여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중입니다.

문의)
동관법인으로 재투자와 한국법인으로 투자하는 것 중 이득이 되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 절차의 비교

외상투자기업이 재투자 하고자 하는 기업의 업종이 권장류나 허용류에 속할 경우,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에 관한 잠정규정>(關于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定)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무부서의 비준이 없이 직접 공상국에 등기할 수 있으므로 절차상에서 비교적 간편합니다.

외상투자기업이 재투자 하고자 하는 기업의 업종이 제한류에 속할 경우, <關于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定>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법인 직접 투자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상무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므로 절차상 한국법인 직접 투자방식과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세수의 비교

2008년 1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中華人民共和國企業所得稅法)이 시행됨에 따라 외상투자기업 재투자에 대한 세수우대 정책도 폐지되었습니다. 때문에 재투자와 한국기업의 직접 투자는 세수상에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이윤 송금면에서 재투자의 경우, 북경회사는 동관회사를 통해 한국에 이윤송금을 해야 합니다. 만약 동관회사가 당해 년도에 결손을 봤다면 동 이윤으로 결손처리를 해야 하기에 한국본사로 이윤을 송금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본사의 직접투자인 경우에는 북경회사의 이윤을 직접 본사에 송금할 수 있으므로 본사의 입장에서 유리합니다.

자료제공 : 금평법률사무소 김호 박사(khc2002@empal.com)

주방 공적금 관련 문의

문의)

모 회사의 2007년 12월에 퇴직한 직원 2명이 2008년 말에 상해 주방 공적금 관리중심에 당사에서 근무기간 중 주방 공적금 미납 사실을 고소하였습니다. 2009년 1월에 당사에서는 주방 공적금 관리 중심에서 소급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복할 경우 60일내 상해시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3개월내 직접 황포구 인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민정부에 행정복의 신청과 황포구 인민법원에 소송 제출이 어떻게 다르며 또한 우리나라같이 3심까지 소송 제출이 가능한지요? 기한이 넘어 행정복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또 본 통지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공적금 관리중심에서 인민법원에 강제 신청한다고 합니다. 주방공적금에 대한 재판 방법과 또한 사례등이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방공적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주방공적금은 회사가 직원에게 반드시 해줘야 할 복지 사항 중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만약 귀사가 직원이 당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주방 공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직원이 다시 요청 했을 경우 그 부분을 보충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위와 같이 이미 퇴직한 직원이 주방 공적금 보충 지급을 요청 할 경우 아래의 해결 방안을 참조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귀사에서 주방 공적금을 책임 관리하시는 분이 공적금 관리 중심과 연락을 하여 상황 설명을 잘 하시고 공적금 지급 비율에 대하여 협의를 합니다. 공적금은 총 급여의 14%로서 보통 회사와 개인이 각각 7%씩 반반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나누어서 부담하는 비율은 고정 된 것이 아니고 회사와 개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적금을 요구하는 직원이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공적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할 급여는 임의로 정 할 수 있습니다. 최저로 660원까지 가능합니다. 즉 상해 시 최저 임금 수준보다 낮지 않은 금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적금 보충 지급 할 경우 직원과 노동 계약이 아니고 협의서를 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적금 관련하여서 회사와 직원사이에 법정을 통하여 판결을 내리는 방법으로 해결 할 수는 없고 공적금 관리 중심을 통하여 협의로 해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공적금 관련 소송은 접수 하지 않습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 KOTRA 상하이KBC 고문변호사 유진용(법무법인 해송)

/끝/

[공지사항]

kotra

OIS 해외진출정보시스템

해외투자진출 정보만을 모아 놓은 대한민국 정부 투자진출 포탈사이트 「OIS」 밖에 없습니다!!

정부·유관기관의 해외진출정보를 one-stop 서비스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 KOTRA, 수출입은행, KIET, KIEP 등 31개 해외투자진출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해외진출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본정보에서 지역별 Q&A까지

국가 기본정보에서 심층보고서, 동영상자료까지 해외진출에 필요한 단계별, 국가별 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진출관련 궁금한 사항을 상담해 드립니다.

해외투자에 필요한 국내절차는 물론 국가별 투자환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해외투자 Q&A에 올려 주세요.

OIS(www.ois.go.kr)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여러 기관에 흩어진 투자진출 관련정보를 한 곳에 모아 One-Stop 서비스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구축한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한 통합포털사이트입니다.